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1호【루계 제26085호】 주체107(2018)년 7월 3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사 라띠나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훌륭히 꾸려진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풍만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고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묘장종업원들의 살림집을 방문하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중국의 환구망, 해외망, 로씨야의 수십개 언론들,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인디아의 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문 《참고소식》, 해외망, 싱가포르신문 《련합조보》, 일본의 교도통신, 에짚트신문 《알 야움 알 싸비아》,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호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그이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페또-쁘린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3일에 진행되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그이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의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에 게재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북과 남의 녀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의 전문을 그이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3일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가 게재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그이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알제리 알좌자이르 타르잘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8일에 진행되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의 전문을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6월 2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의 전문을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가 6월 2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포롬도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6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4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까라까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4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4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귀 당 전국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이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고 볼리바르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며 귀 당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 당대회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7(2018)년 7월 28일 평양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몽골, 이란, 로므니아, 기네, 적도기네, 나이제리아, 예멘, 에짚트에서 업적토론회, 회고모임, 독보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캄보쟈 왕궁담당 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각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의 구체적실정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게 구현해나가신 세계의 전무후무한 정치원로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존엄높고 자주적인 국가로 전변되였다.

그이께서는 캄보쟈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캄보쟈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각하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것이다.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은 한없이 겸허하시고 인자하시며 평범하시면서도 위대한분이시였다,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국제부 부부장은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인민에게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신 영원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주와 독립, 진보를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시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찬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열렬한 애국의 마음안고 공화국창건 70돐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해가자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공사성과 확대

216사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216사단의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단안의 려단, 련대, 대대들에서는 자재와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10여종에 달하는 기계설비들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단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사단정치부에서는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자체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단위의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품이 많이 들고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조직하여 시공에서 실지 은을 내는 설비들에 대한 사단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그 작업원리, 경제적효과성을 모두가 잘 알고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단위별경쟁열풍이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련대, 대대들에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담보하는데 이바지하는 기계설비들이 많이 창안제작되여 공사성과를 확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직속 4대대에서는 3명의 작업성원으로 시간당 12㎡의 미장을 하면서 두께까지 측정하고 수정작업도 할수 있는 자동미장기와 종전보다 적은 로력으로 모래를 규격별로 선별할수 있는 모래정선기를 만들어 공사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 3련대의 건설자들은 자갈생산공정을 꾸려놓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여러가지 규격의 자갈생산작업에서 로력을 대폭 절약하고있다.

1련대에서는 성능이 좋은 인조석연마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연마속도를 3배이상 높이면서 5~7일정도 양생된 인조석을 연마하여 자연석재효과가 나타나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흄관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그 덕을 보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황해북도련대에서 전기비닐관가공지구를 만들어 하부망전기공사에 필요한 마감자재의 질과 가공속도를 5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남포시련대에서는 합리적인 철근가공설비를 받아들여 가공속도를 1.5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자강도련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볼분쇄기를 리용하여 자재의 손실을 없애고 페용재생산용원료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그밖의 단위들에서도 로력과 철강재를 절약하면서 작업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들도리시공도구를 받아들이고 휜부사를 미분할수 있는 기계설비를 만들어 백세멘트를 리용할때보다 원가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공사속도를 높이는 등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구조물골조공사에서 혁신 창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이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여러동의 건물골조공사와 지탄장의 천정기중기밑보조립, 가스청정대상에 대한 기초콩크리트치기 등이 결속되였다. 또한 지하관로망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상공사들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일군들은 골재를 비롯한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는데 힘을 넣는 한편 대상설비생산현장들에 나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혁신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화학건설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상공사에서 비약을 일으키도록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힘을 합쳐 발대수를 더 늘이지 않으면서도 현존 발대수를 가지고 순환수랭각탑에 대한 콩크리트충막치기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가스청정대상 기초콩크리트치기문제를 놓고 여러차례의 협의회와 현상모집을 조직한데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휘틀제작에 들던 많은 로력과 목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은 수백t이나 되는 메타놀저장탕크기초를 옮겨야 할 문제가 제기되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면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그리하여 단 2시간동안에 저장탕크기초를 성과적으로 옮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가 맡은 대상공사장에서도 타올랐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하관로망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기능공들의 용접경기를 조직진행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기능공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발휘하여 용접작업의 질과 량을 다같이 보장함으로써 2천여m에 달하는 지하관로망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다. 결과 지하관로망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였다.

대상설비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처음 제작하는 설비들이 많은데 맞게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십종의 지구장비를 창안도입하였다. 특히 중량물을 다루어야 하는데 맞게 문형기중기를 완전복구하여 대상설비생산에 적극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탑염수저장탕크를 비롯한 설비생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대상설비생산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안주뽐프공장에서는 각종 뽐프들을 제작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탑염수장의 설비기초콩크리트치기를 위한 준비사업과 후생건물, 종합조종실 등에 대한 골조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7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원산군민발전소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원산군민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물관리를 과학화하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7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이바지할수 있게 언제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관리를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발전기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상반년기간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발전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측정장치들과 보호장치들을 새롭게 제작도입한 전력생산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언제의 물량을 수시로 알아보고 그에 맞게 통신지휘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언제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일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기들마다 만부하를 걸고있다.

이와 함께 비상변과 입구변을 비롯한 물이 샐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올해 높이 세운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는데서 앞장서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분발해나선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도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전력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현대적인 약수치료기지가 일떠섰다

강서약수공장에서

약수를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과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강서약수공장에 현대적인 약수치료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강서약수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속에 생산량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약수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강서약수는 세계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천연음료로 인정받고있을뿐아니라 치료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다.

지난해 6월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은하지도국과 강서약수공장의 일군들은 강서약수를 음료로뿐아니라 치료에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박영호국장을 비롯한 은하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건설장에 나와 자재와 로력보장대책을 세우고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건설에 동원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건축형성안에 기초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현장의 온도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비닐박막으로 덧집을 짓고 그속에서 난로를 피워가며 한순간도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약수치료기지건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눈부신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을 찾아주시였던 그날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진 지배인 림선화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 동시에 약수치료기지건설을 다그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선 편리성과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주변정리사업과 원림록화사업도 성과적으로 결속되어 약수치료기지는 한폭의 그림처럼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현대적인 약수치료기지의 성과적인 완공은 은하지도국의 일군들과 강서약수공장의 종업원들이 지펴올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현대적인 약수치료기지에서는 위병,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운 약수와 찬 약수목욕과 함께 약수에 의한 치료를 받게 된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새로 일떠선 약수치료기지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녀성들의 끝없는 환희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어느덧 72년의 세월이 흘렀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을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어려온다. 력사적인 법령발포에 접하고 이 나라 녀성들이 감격에 흐느끼며 목청껏 웨친 《김일성장군 만세!》, 《남녀평등권법령 만세!》의 환호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남녀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였고 녀성해방을 표방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지만 녀성해방을 인간해방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법화한 사실은 없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로 굴욕과 천대,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남녀평등권법령발포와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조선녀성들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웨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실 때 녀성들의 운명에서도 극적전환이 일어나고 참된 삶이 꽃피며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조국이 해방된 후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는것은 낡은 사회의 유습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며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각성한 녀성들을 내세워 녀성동맹을 뭇게 하시였으며 여기에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여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남녀평등의 권리는 누가 선물처럼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녀성들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시며 녀성들이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새 조국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여받게 하시고 로동법령을 실시할 때에도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여 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주체적인 녀성해방강령, 녀성운동의 투쟁강령이였으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녀성사랑, 녀성존중, 녀성중시의 대법전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수수천년 무지와 몽매속에서 수모당하며 남존녀비사상의 희생물이 되여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조선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는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첫 민주선거를 통하여 녀성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을 통하여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후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끝나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온갖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녀성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이라고, 수레바퀴가 한쪽만 돌아가서는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그토록 중시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와 은혜로운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중요한 초소를 맡은 책임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당일군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날수 있었고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조선녀성의 존엄과 기개를 떨치며 자랑찬 위훈을 수놓을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우리 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으로 가슴끓이며 그품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땅에 녀성중시의 력사를 줄기차게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며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녀성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온 나라에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사회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분, 녀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 혁명적군인가정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녀성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보아주는 녀성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녀성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 꽃펴난 혁명일화들이 눈굽뜨겁게 되새겨진다.

《녀성해안포병과 악크림》, 《3. 8절의 〈불향기〉》, 《은정어린 〈코스모스〉 보석머리빈침》…

우리 녀성들의 몸단장을 위해 비단옷감과 화장품생산문제에도 깊이 마음쓰시였으며 전선길에서 만나신 녀병사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국녀맹예술소조원들의 소박한 공연까지 몸소 보아주시고 녀성동맹이 힘있는 조직이 되여야 한다는 믿음을 주시며 힘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령도자를 잘 만나는것은 그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가장 큰 행운으로 된다. 하지만 누구나 바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행운을 우리 녀성들은 대를 이어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맞이한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를 높이 모시여 오늘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3. 8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들을 축하하여 황홀한 공연무대를 펼치도록 하시고 사랑의 선물도 가득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다심한 어버이사랑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자합숙들에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등 이 땅에 일떠선 많은 창조물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녀성혁명가로,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참된 삶을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귀중한 청춘시절을 총대와 함께 빛내여가는 녀성군인들,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이 되여 원군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 녀성들,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들인 군관안해들, 녀성과학자들과 녀성교육자들, 외진 섬초소의 학교들로 탄원해간 처녀교원들, 금메달로 조국의 명예를 빛내이는 녀성체육인들…

참으로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은 절세위인들께서 제시하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탁월한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조선녀성들이 당과 수령의 고귀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참된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을 이 땅우에 자랑스럽게 새겨온 보람찬 투쟁의 년대기이다.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값높은 권리를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들께 드리는 이 나라 녀성들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 그 하늘같은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할 맹세가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는 내 조국땅에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것이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선녀성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인 동시에 강인하고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진 나라이다. 이것은 억대의 재부보다 더 큰것이고 천만의 대군보다 더 위력한것이다.

머지않아 세상사람들은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품들여 보살피고 키워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속에서 나라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나고있는 우리 녀성들이 또 어떤 눈부신 위력을 떨치는가를.

세계여,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참된 삶을 누리는 조선녀성들을 부러워하라!

본사기자 김 성 남

뜻깊은 날에 받아안은 축복

오늘 우리의 녀성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 때면 근 10년전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혁명을 떠메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주체98(2009)년 7월 30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찌는듯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대적으로 새로 꾸려진 평양방직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가슴뜨거운 추억을 불러오는 영상사진문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한장의 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 사진문헌은 30여년전 공장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합숙의 식당에 들리시여 수수한 그릇에 담은 국을 뜨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뜻깊은 화폭이였다.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고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이 사진은 뜻이 깊은 사진이라고,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합숙에 들려 국맛까지 보아주시였는데 앞으로 자신께서는 로동자들의 합숙에 찾아가 김치를 비롯한 밑반찬맛도 보아주려고 한다고 정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못 잊을 그날 로동자들의 합숙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방이 춥지는 않는가, 이불은 두터운가,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가를 하나하나 물으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구석구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때 한 애어린 처녀는 부모들도 아직 와보지 못한 합숙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흐느껴울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아마 너의 부모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는것 같다고 하시며 그를 달래시였다.

처녀는 봇물이 터진듯 눈물을 쏟으며 수령님의 품에 안기였다.

공장의 녀성로동자들을 그처럼 위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격정으로 달아오른 공장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이날 공장의 로력영웅들과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이 오늘처럼 로동당시대의 녀성답게 자기의 명성과 존재가치를 눈부시게 빛내인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우리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전변은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의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기념일인것만큼 사진을 찍자고, 이자 만나본 로력영웅들과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도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품에 안긴 그들모두의 두볼로는 행복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뜻깊은 기념일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

정녕 그것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축복이였다.

본사기자 김 일 권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언제인가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성들을 위한 건강운동실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는 녀성들의 운동실인데 왜 공과 줄이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현대적인 운동기재들과 치료설비들은 많이 갖추어놓느라고 하였지만 공과 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이 이제 갖추어놓겠다고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녀성들의 몸매를 가꾸는데서는 공운동과 줄운동이 아주 좋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이날 어느 한 운동실에 거울을 붙여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할수 있어 좋아할것이라고, 특히 녀성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럴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한없이 다심하고 따뜻한 어버이사랑속에 안겨사는 우리 녀성들보다 더 행복하고 긍지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 또 어디 있으랴.

하나의 기호품에도

몇해전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미래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용품매대에도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이날 일용품매대의 맨앞에 있는 머리빈침매대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더욱 사무쳐오는 코스모스머리빈침들이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었다.

매대는 모양도 색갈도 가지가지인 보석빈침들이 가득차있어 마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핀 화단을 방불케 하였다.

매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빈침은 우리 녀성들이 좋아한다고 기쁨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상점에서는 녀성들이 어떤 형태의 머리빈침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공장에 주문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는것을 가져다 팔아주어야 한다고, 상점들에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손님들이 어떤 형태의 상품을 더 좋아하는지 자주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못 잊을 그날 일군들은 우리 녀성들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내세워주시려 기호품 하나를 놓고도 그토록 마음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새기였다.

첫 어머니날이 전하는 사연

첫 어머니날이 가까와오고있던 몇해전 11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날을 맞으며 축하장을 신년축하엽서를 만들듯이 잘 도안, 인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축하장도안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빨리 만들어 제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머니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만큼 조직사업을 긴급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불과 몇달전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아름답게 피여난 꽃들을 보시고 이번에 국가적으로 어머니날도 새로 제정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소개선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날에 사람들이 꽃방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주면 그들이 더 좋아할뿐아니라 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뜻깊은 첫 어머니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받아안은 축하장들과 꽃들에는 이렇듯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정이 깃들어있었다.

오 영 심

영웅의 가정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주체40(1951)년 3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자강도에 가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이번에 내려갈 때 지질탐사일군들을 같이 데리고가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희천지구의 지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오라고 가르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전에는 룡성을 비롯한 해안가에만 기계제작기지를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망적인 튼튼한 기계제작기지를 창설하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과정에 흩어진 기계기술자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이고 새로운 기술자들도 키워내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희천이나 덕천과 같이 동력기지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지대에 새로운 기계제작공업기지를 창설하시려는 자신의 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준엄한 전쟁을 하고있는 조국, 그러나 머지않아 승리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주체적인 기계제작공업기지창설이라는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승의 신념과 비범한 선견지명에 또 한번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해 8월 희천지구에 새로운 기계제작공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이 채택되였다. 전선에 나갔던 기술자, 기능공들이 희천의 기계공장건설장으로 파견되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공장건설장을 몸소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앞으로 전쟁이 승리한 후 이 공장을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모체공장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어머니공장인 희천기계공장(당시)은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태여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당조직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당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야기를 터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여기에는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각급 당위원회가 인민들이 어머니품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당조직이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모든 당조직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각급 당위원회들이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깊이 뿌리를 박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진행해나가는것이다. 당조직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인민을 위해 진정을 다하며 인민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를 때 당과 인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면 당조직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일군들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 어머니당, 이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펴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것은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부모는 육체적생명의 보호자이지만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손잡아 이끌어주어 혁명대오에 다시 세워주어야 하는것이 당일군의 임무이다. 당일군들은 못난 자식,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한품에 안아키워주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막아나서는 어머니같이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당일군의 자세이며 본분이다.

당일군들이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자면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부터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당일군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당기관을 마치 권력기관으로 여기며 자신을 특수화하면 인민을 하대하고 무시하게 되며 나중에는 인민우에 군림하는 세도군, 관료배가 될수 있다. 언제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당일군, 민심을 틀어쥐고 인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당일군을 인민들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이런 당일군들의 모습에서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안게 되는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급 당위원회들이 우리 당의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 집행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책이다. 우리 당은 로선을 세워도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며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부터 생각하고있다. 농업정책, 경공업정책, 수산정책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행복과 직결되여있다. 따라서 당정책관철이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이며 여기에 당위원회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 때 그 정당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당에서 아무리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한갖 맹세나 회의기록으로만 남는다면 인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가져다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당과 대중을 괴리시키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면 무조건 집행하여 당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정책관철의 앞장에는 언제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서있다. 최근년간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가 그 본보기라고 할수 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먹는 물문제와 승강기정상운영문제, 려객운수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수시로 깊이 료해하면서 당위원회가 해야 할 사업들을 대담하게 구상하고 하나하나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갈 때 당위원회가 명실공히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조직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일군들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명 주 혁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내밀자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끊임없는 창조를 낳는다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최근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국내원료와 자재, 설비로 신발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최근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정상화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장 김철명: 올해에 들어와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맹렬히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류원신발공장의 경험을 따라배워 가벼우면서도 질좋은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각지 신발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경쟁열의는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새 기술을 맹목적으로 본따는 식으로가 아니라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새롭게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다.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제일먼저 생산에 도입한 원산구두공장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창생산공정 확립을 위한 기술준비에서부터 잡도리가 남달랐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 기술협의만도 수십차례 진행하면서 장치구조를 더 간단하게 하고 염화비닐을 극력 적게 쓰기 위한 방도를 찾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진지한 탐구와 노력끝에 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장치제작에 품이 적게 들면서도 해마다 적지 않은 량의 염화비닐을 절약할수 있는 선진기술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6월부터 생산에 도입한데 의하면 구두창의 무게가 10-15g이나 줄어들었다. 결국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지금 가벼우면서도 질좋은 여러가지 남, 녀, 아동구두생산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신의주신발공장, 원산신발공장에서도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앞으로 빠른 기일안에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도입사업이 끝날것으로 보고있다. 지금 자체의 힘으로 신발의 질을 끌어올리고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려는 신발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책임부원 손일근: 정말 그렇다. 신발생산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여러가지 신발자재들과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함흥접착제공장에서 국내원료로 개발한 접착제가 지금 신발공장들에 도입되여 생산이 진행되고있으며 류원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원산신발공장, 평양신발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도 해당한 접착제, 안정제들을 국내원료와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전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가죽이김공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가죽이김약제들을 국내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본격적으로 내밀어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기사장 김철명: 설비국산화사업에 대해 요점적으로 설명한다면 관리국에서는 평양신발기계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력량을 집중하고 1차적으로 단능설비들부터 자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설비개조를 밀고나가고있다. 최근에도 평양신발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여러 신발공장들에 사장되여있던 설비들을 자동화수준이 높은 설비들로 훌륭히 개조하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도내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신발창자동풀칠기제작에 성공하여 손로동을 없앨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지금 신울풀칠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전투에서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평양가죽이김공장에서도 수입해야만 한다고 여겨오던 여러 설비들을 해당 단위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제작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기자: 들을수록 신발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증산의 동음을 힘있게 울려갈 자력자강의 정신이 만장약되여있다는것이 느껴진다.

기사장 김철명: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관리국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그 어떤 목표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자기것의 창조만이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할수 있는 활력소라는 것을 생산자대중이 실천을 통하여 절감하고있다.

국장 리송: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조건은 의연히 어렵다. 그러나 그 무엇이나 다 우리 힘과 기술로 해낼수 있다는 정신으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문제는 우리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경공업전선의 한 전구를 책임진 지도일군으로서 경제작전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 당정책관철로 들끓는 생산자들의 창발성,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겠다.

본사기자 리철옥

국내원료로 접착제 개발

함흥접착제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함흥접착제공장에서 국내원료를 용매로 하는 신발접착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접착제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매를 수입원료로 제조하여 리용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내원료를 용매로 하는 신발접착제를 개발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 실현을 위하여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의 화선식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두가 자력자강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이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국내원료에 의한 접착제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원료들중에서 용매를 제조할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고 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리는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책임기사 한태빈, 제조공 리철민동무를 비롯한 기술혁신조 성원들은 문헌자료조사와 합리적인 배합비률을 확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거듭되는 실험과정에 이들은 용매제조에 리용할수 있는 원료들을 선택하고 합성반응에 적합한 촉매를 찾아내였다.

용매제조공정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여 국내원료를 용매로 하는 접착제를 개발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이에 맞게 대중을 용매시험제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재와 원료보장 등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공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신발생산의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헌신적인 투쟁으로 반응기와 응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제작하여 10여일동안에 용매시험제조공정을 꾸려놓았다.

시험제조의 성공에 이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종전의 용매제조공정개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용매를 받아들인 결과 종전보다 접착제의 세기가 높아진 반면에 생산원가는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높아지고있는 접착제수요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충족시킬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국내원료에 의한 용매제조공정을 훌륭히 확립하여놓은 함흥접착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접착제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각지 신발공장들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새 건조설비를 만들기까지

강서편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의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망적으로 첨단수준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강서편직공장에서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든 원적외선건조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종전의 수입설비에 비해 전기는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건조능력이 높고 제작원가 또한 적은것으로 하여 그 어느 단위에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는 이 건조기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창조한 자력갱생의 산물이다.

이전의 건조설비는 전력소비가 큰것으로 하여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의 김명훈동무가 원적외선건조기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들 대담한 기술혁신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전력소비가 큰 흡입원통건조기를 전혀 쓰지 않고 뜨개천을 건조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였다. 초보적으로 계산해보아도 강제대류에 의한 뜨개천건조공정을 원적외선복사에 의한 뜨개천건조공정으로 바꾸면 강제대류를 보장하기 위해 쓰던 전력소비가 큰 전동기들을 돌리지 않게 되어 적지 않은 전기절약예비를 얻을수 있었다.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즉시 기술혁신조가 무어지고 설비제작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단순한 설비의 개조가 아니라 옹근 하나의 설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고 로력과 설비, 자재도 부족하였다.

그렇다고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맥을 놓고 주저앉아 제자리걸음만 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새로운 건조기를 제작하자.

이런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적외선건조기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공장책임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한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예비탐구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공장기술자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리동철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제작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제작전투의 나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친것은 오직 하나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기어이 건조기를 만들어내려는 신념이였고 그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드팀없는 의지였다.

하기에 이들은 생소한 길이였지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극복하며 원적외선건조기를 단번에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당정책을 뼈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뛰고 또 뛰면 어디서나 좋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원적외선건조기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는 과정에 강서편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시금 신념으로 새긴 진리이다.

김국철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좋은 우리의것을

박천견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다.

공장에서는 자재와 설비를 국산화하는 문제를 놓고 열기띤 토론이 진행되였다. 이날의 협의회에서 중요하게 토의된 문제는 함부기를 자체로 만들어내는것이였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자못 심중하였다. 그것은 이 설비제작이 매우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안고있었고 다른 단위들에서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기때문이다.

협의회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함부기를 제작해야 한다는데로 모두의 의견이 합쳐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해당 부문의 과학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우리 식의 함부기를 만들어낼 결사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전투에 진입하였다.

해당 단위 연구사들이 하나의 부분품설계를 놓고 며칠밤을 꼬박 밝히며 다시 그린 도면만 하여도 몇백장이 넘었다. 몰려드는 피로로 하여 쓰러지기도 하였지만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설계전투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질 때 일군들은 부분품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공무직장의 기능공, 로동자들은 가공품의 정밀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결과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해당 부문의 연구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수천점에 달하는 함부기부분품을 자체로 제작완성하였다. 이어 건조원통로라에 주파수속도조절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우월한 함부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으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지난 시기 날염공정에서는 오염을 방지하는데 적지 않은 량의 종이가 소비되였지만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 문제도 누가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언제가도 생산정상화를 담보할수 없었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직물생산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려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립장에서 일판을 벌려나갔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주도형의 일군이 되여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갔고 기술자, 기능공들은 주야간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종이생산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내였다. 또한 비로도직장 상대직기 씨실절단장치에 들어가는 중요부분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기지를 새로 꾸려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박천견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달라붙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학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 안고 편직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혁신적인 안목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순천탄부물자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순천탄부물자생산사업소가 힘있는 단위, 일잘하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자체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질좋은 로동보호물자들을 생산보장하고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를 두고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로동보호물자들을 구입하여 공급하는것으로 그치던 사업소가 이제는 많은 몫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석탄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혁신적인 안목에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지배인을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몇해전 이곳 지배인으로 임명된 전영도동무는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탄부들에게 필요한 로동보호물자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일군들의 사업태도에서 찾았다.

조건타발만 하면서 보장해주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일군이 단위에 열, 백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그에게 맡은 임무의 무게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하였다. 모든 물자들을 이렇게 구입하여 전달해주는 식으로 보장한다면 언제 가도 탄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사업소 역시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것이 사색끝에 지배인이 내린 결론이였다.

(당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자력갱생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있지 않는가. 사업소 자체의 힘으로 로동보호물자들을 생산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지배인은 사업소를 단순한 구입자, 전달자의 위치에서부터 생산단위로 강화발전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단계별목표들을 하나하나 현실성있게 세워나갔다.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려 여러종의 로동보호물자들을 자체로 생산, 석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 사업소현대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

처음에 종업원들속에서는 과연 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것이 중요했다.

이 나날 지배인은 기술과제해결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우선 탄부들속에서 소비량이 많은 비누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기로 하였다. 그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폐설물에서 추출한 물질들과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를 배합하면 원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질좋은 비누를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즉시 제품개발에 달라붙었다.

그것이 바로 세멘트소성먼지에 의한 비누생산이다. 하늘로 날아나는 먼지를 재자원화하여 질좋은 비누를 생산하는것은 두말할것없이 좋은 일이지만 결코 누구나 쉽게 시작을 뗄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한 단위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애국충정과 혁신적인 안목에 뿌리를 두고있다.

하다면 이 높은 목표를 어떻게 실현했는가.

가성소다대신에 세멘트소성먼지에서 가성카리를 추출하고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와 배합하여 질좋은 비누를 만드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사업소의 기술력량은 미약했고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당정책관철의 맨 앞장에서 실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이 일군의 본분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지배인은 기술혁신전투의 선봉에 섰다.

비누생산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경공업공장들을 찾아 머나먼 길을 몇차례나 다녀왔고 비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한 기술자료만도 수십건에 달한다. 실패도 많았다. 그때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구사들의 방조를 받으며 지배인은 자력갱생의 신념을 더욱 백배했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갔다.

교반기를 도입하여 비누원료의 혼합을 질적으로 하는 문제가 나섰을 때였다. 뭐니뭐니해도 력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교반기날개를 제작해야 하였다. 방도를 찾은 즉시 지배인은 천수백리 떨어진 어느 한 조선소에로 길을 떠났다.

며칠후 교반기날개를 질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돌아온 지배인의 모습이 대중에게 준 여운은 컸다.

일군의 헌신적인 일본새는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기술혁신전투에 참가한 모든 종업원들이 낮에는 생산현장에서, 밤이면 훌륭히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탐구를 거듭하며 열정을 바치였다.

이 과정에 염석공정을 새로 확립하여 비누원료의 잡물질과 냄새를 제거하는것, 물유리생산공정을 꾸리고 여기서 생산한 가성카리물유리로 비누의 세척효과를 높이고 굳기를 보장하는것, 생산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는것 등 선진기술들이 개발되였다.

마침내 사업소에서는 철저히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질좋은 비누를 펑펑 생산해내게 되였다. 얼마전에는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자력》이라는 상표를 단 이 비누를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손으로 이룩한 성과에서 종업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가지였고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섰다.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동력문제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풀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공정확립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족한것은 보충하고 헐간한 설비들은 만들어내면서 긴장한 나날을 이어갔다. 일군들과 로동자들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리였다. 헌신적인 투쟁은 알찬 열매를 맺어 여러 생산공정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했다. 발전능력을 더욱 확장하여 사업소에서 쓰고 남는 전기를 주변주민지구에도 공급하기 위한 전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종업원들속에서 날이 갈에 따라 자력갱생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가운데 사업소개건공사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고 여러 생산공정도 훌륭히 꾸려져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탄부들에게 질좋은 로동보호물자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순천탄부물자생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한 실천력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생산공정의 현대화 적극 추진

희천제사공장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희천제사공장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만도 자견작업반의 고치삶기공정에 자동고치계량장치, 자동고치공급장치를 창안도입한데 이어 조사작업반의 실뽑는 공정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각이한 원료조건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명주실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자체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고 경영활동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모두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기술자들속으로 들어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로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열관리공정을 새롭게 개조한데 이어 합리적인 전력관리체계와 생산장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내밀었다.

이들은 전력관리, 열관리에 대한 정보화 및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생산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이어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대학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들은 공장의 현 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통합생산체계 구성안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렸다.

도당책임일군이 자주 현장에 나와 대학의 연구사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을 고무추동해주면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어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대학의 연구사들과 공장의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며 여러가지 정보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다그치는것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첨단과학기술이 안받침된 생산관리체계와 자동조종체계도 원만히 확립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계획작성과 로력관리, 생산과 판매를 비롯한 경영활동의 정보화와 과학화,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데 맞게 로동자들의 과학기술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명주실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룡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영웅전사들의 삶은 조국의 축복속에 영원히 빛나리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보고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안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류다른 광경이 안겨왔다.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배우들이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온 종목들로 이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소리가 울리고 신비한 요술세계가 펼쳐질 때마다 전쟁로병들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녀성배우가 《매봉산의 노래》를 간드러지게 뽑아넘기자 전쟁로병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춤판에 뛰여들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웃음짓던 한 전쟁로병이 우리에게 추억깊은 어조로 이런 생각을 터놓았다.

《배우동무들이 숙소에까지 찾아와 공연해주니 전화의 나날에 화선으로 찾아왔던 인민군협주단 배우동무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락에 맞추어 한바탕 춤판을 펼치고나면 멸적의 힘이 온몸에 솟구치고 승리의 신심이 넘쳐나군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정은 꼭 그날에로 되돌아간것만 같습니다.》

곁에 있던 전쟁로병도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이번에 우리들이 관람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에 올랐던 전시가요들이 정말 인상적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전시가요들을 배워준것도 전선으로 찾아왔던 인민군협주단 배우동무들이였습니다.》

그래서였으리라.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면서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문경고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이 울려퍼질 때마다 전쟁로병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던것은.

자기들에게 진정한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인 조국을 지켜 불타는 고지마다에서, 육박의 돌격전마다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뒤를 이어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섬멸의 길로 나아갔던 그들이었다.

피흘려 지킨 조국땅에서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로 떠받들리우는 긍지와 행복을 안고 추억깊은 노래들을 새겨보는 전쟁로병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재청을 요구하는 전쟁로병들의 청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룩소야 어서 가자》의 노래를 흥겹게 불러 전쟁로병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남성배우가 이번에는 《새철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를 흥취나게 울려갔다.

전쟁로병들이 또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춤판을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여 번영하는 로동당세월속에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존경받으며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있는 전쟁로병들의 더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대로 노래의 구절구절, 춤가락에 실려있는듯싶어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졌다.

국립교예단 요술배우가 보면 볼수록 신기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술의 세계를 펼칠 때마다 전쟁로병들의 입에서는 연해연방 탄성이 울려나왔다.

즐겁고 감동깊은 공연을 보며 기쁨에 넘쳐있던 한 전쟁로병이 북받치는 흥분을 누를길 없어 전쟁로병들의 앞으로 걸어나왔다.

은은한 손풍금소리에 뒤이어 전쟁로병의 입에서 《내가 지켜선 조국》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노래를 조용히 따라부르는 전쟁로병들의 가슴속에서 또 어떤 추억의 물결이 일렁이고있는지.

아마도 푸른 숲 우거지고 오곡백과 설레이던 산과 들이 화약내짙은 싸움터로 변하고 웃음꽃 피여나던 정든 집은 원수들의 폭격속에 재더미가 되였어도 승리하고 돌아가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꽃피워나갈 신심과 랑만에 넘쳐있던 그날의 화폭이리라. 전화의 정신을 굿굿이 이어 후대들도 이 땅을 피로써 지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이리라.

어느덧 공연이 끝나고 전쟁로병들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기 바란다는 절절한 당부를 남긴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배우들은 전쟁로병들이 있는 다음 호동으로 찾아갔다.

화선으로 달려왔던 인민군협주단 배우들과 전쟁로병들을 찾아온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배우들, 비록 공연시기와 환경, 장소는 달라도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값높은 위훈에 대한 긍지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며 화선용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 순회공연길이였다.

글 본사기자 조 경 철
사진 본사기자 리 동 규

60여년만에 만난 세 전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입니다.》

뜻깊은 전승절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숙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이때 대동강구역의 류성준전쟁로병은 황해북도에서 온 전쟁로병들이 들어있는 호동으로 숱근숱근 걸음을 옮기였다.

(살아있다면 꼭 왔을텐데…)

대회 첫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부대에서 싸운 전우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질 때마다 전화의 나날의 못 잊을 전우가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그였다. 언제인가 그 전우가 사리원시에 자리잡은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적이 있으나 그후 생사여부는 알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사리원시에서 온 전쟁로병들이 든 호실을 찾은 류성준전쟁로병은 여기에 리윤종이라는 로병이 없는가고 물었다. 누군가가 있다고 대답하며 창문결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로병을 가리켜보였다. 류성준전쟁로병은 가느스름한 눈매가 몹시 낯익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전쟁때 해안포중대에서 싸우지 않았소?》

그걸 어떻게 아는가고 되묻던 로병의 눈이 금시 커졌다. 이어 목메인 웨침이 터져나왔다.

《이게 새별눈 2포장이 아니요?!》

《옳소. 자네 비상머리로 불리우던 1포장이지?!》

두 로병은 와락 그러안았다.

《이게 몇해만인가.》

《전쟁이 끝난지 이태만에 헤여졌으니 꼭 63년만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류성준전쟁로병이 말했다.

《3포 조춘수 한창원동무도 여기에 왔소. 그도 평양에서 살고있소.》

이렇게 되어 세 전우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지였다.

그들은 추억했다. 조국의 바다로 기어든 적함을 향해 멸적의 포탄을 날린 전화의 나날들을.

그중에는 세 전우가 한날한시에 전사의 영예훈장을 수여받은 잊지 못할 전투담도 있었다.

《참 통쾌했지. 그때 우린 두척의 적구축함과 여러척의 소해함을 침몰시켰지.》

《옳소. 그때 이 비상머리 윤종동무는 련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포좌지밖에 나가 육안으로 적함선까지 거리를 가늠해가지고 사격구령을 내려 적함을 답새겼지.》

전쟁때의 이야기를 실컷 나눈 후에야 그들은 서로의 지금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연구사로 근무하고있는 리윤종전쟁로병은 교수 박사였다.

류성준, 한창원전쟁로병들도 값높은 인생길을 걸어왔다.

세 전우의 뜻깊은 상봉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생각이 깊었다.

전쟁시기에 한전호에서 함께 피흘려 싸웠으며 전후에 초소는 서로 달라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길을 걸어온 세 전우.

전화의 그 정신과 조국을 함께 지킨 전우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을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있은 그들이 어찌 서로 헤여져 살았다고 할수 있으랴.

제대될 때 조선인민군 대좌였다는 류성준전쟁로병이 전쟁시기의 병사복을 입고있는 모습은 별로 인상깊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류성준전쟁로병은 말하였다.

《전화의 나날의 피젖은 군복이 있어 오늘날 인민군군관들이 즐겨입는 멋진 례복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60여년만에 만난 세 전우.

참으로 뜻깊은 상봉이였고 또한 뜻깊은 이야기였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화의 영웅들의 불멸의 투쟁업적과 그들의 고결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당과 조국의 절절한 당부가 새 세대들인 우리의 심장에 다시금 깊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사랑속에 마련된 뜻깊은 상봉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대회참가자들이 든 숙소는 항상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당의 사랑속에 또다시 마련된 로병대회에 참가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가족, 친척들이 너도나도 달려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것이다.

대회의 나날 정다운 가족, 친척들과의 뜻깊은 상봉을 하게 된 대회참가자들속에는 창도군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정재영전쟁로병도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넘겨주는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으로, 힘으로 됩니다.》

정재영전쟁로병이 나타나자 어느새 그를 알아봤는지 4살잡이 손자애를 안은 막내딸이 얼굴에 반가운 미소를 짓고 달려왔다.

남편을 따라 평양으로 이사를 온 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아버지였다.

《아버님, 축하합니다. 아버님이 로병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소식을 받고 애아버지랑 이애랑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나도 집에서 줄창 너희들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줄이야…》

감격에 겨운 정재영전쟁로병이 그새 몰라보게 자란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고있는데 름름하게 생긴 대학생청년과 조선인민군 군인이 그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안겨드렸다.

《로병대회에 참가하신 할아버님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들은 신의주시에서 살고있는 둘째딸의 자식들이였다.

어제 텔레비죤화면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면서 맏이가 말하였다.

《오늘 내가 로병대회에 참가한 할아버지를 만나뵈오러 간다니까 우리 학급동무들이랑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지휘관동지들은 할아버지가 락동강까지 갔다온 전쟁로병이라는것을 알고 꽃다발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손자의 얼굴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신 전쟁로병할아버지를 모시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정재영전쟁로병도 대회의 나날 전쟁로병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로병들이 안고있던 마음속소원까지 따뜻이 헤아려준 우리 당의 웅심깊은 사랑에 대하여 목메인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단란한 분위기속에 모여앉아 함께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재영전쟁로병의 가슴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기에 그는 딸자식과 손자들의 손을 꼭 잡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애들아, 우리모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자꾸나.》

이것이 어찌 한 전쟁로병의 당부만이랴.

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모두가 자기의 가족, 친척들에게 하는 뜨거운 당부였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쩌면 그리도 친절하고 살뜰한지 려관이라는 생각보다도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심정입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친자식들 같습니다.》

이것은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4.25려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의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터치는 진정의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대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풍모이며 전통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조영일, 문명진동무를 비롯한 려관의 일군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매일과 같이 열리는 협의회였다. 토의안건은 하나 전쟁로병들의 편의를 최대로 돌보아주기 위한것이였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내고 전승의 기적을 창조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온 나라가 아끼고 우대하며 적극 내세워주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

피로써 조국을 지킨 전쟁로병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인일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백봉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였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끓는 가슴으로 화점을 막고 육탄이 되여 적기와 땅크를 맞받아나간 영용한 그들이 아니였다면 존엄높고 강대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오늘의 행복넘친 생활도 없을것이라는 것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지난 시기 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온 려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지만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쟁로병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두어깨에 실린 임무의 중요성을 무겁게 되새기며 늘 자기들의 성의가 부족한것만 같아 더욱더 마음쓰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다.

이날도 일군들은 전승절을 맞는 전쟁로병들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식사차림표며 예술소품공연 등 여러가지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운 그들은 빈틈이 있을세라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면서 빠진것이 없는가, 무엇을 더 할수 있겠는가 생각을 더듬었다. 그들은 몇가지를 더 보충하고서야 협의회를 마치였다.

전승절을 앞둔 려관은 명절준비로 더욱 흥성이였다. 한쪽에서 전쟁로병들의 구미에 맞는 한가지 식찬이라도 식탁에 더 올려놓기 위해 왼심을 쓸 때 다른쪽에서는 예술소품공연종목선정을 놓고 토론이 활발히 벌어지고 밤늦게까지 기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였다.

다음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호실들을 찾아 전승절을 맞는 전쟁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밤새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은 일없는가고 자근히 물어보며 호실온도도 가늠해보는 그들의 모습은 전쟁로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전시가요들과 흥겨운 민요들로 엮어진 예술소품공연 또한 전쟁로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려관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기들을 위해 기울이는 려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성에 한두번만 감동되지 않은 전쟁로병들이였다.

나이가 많아 걷기 힘들어하는 로병들에게 키에 알맞게 지팽이도 품을 들여 만들어주고 옷과 속내의까지 정성껏 빨아 손질해준 일군들과 종업원들.

식당으로 오가는 홀에 놓여있는 의자에도 로병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웅심깊고 사려깊은 마음이 비껴있었다.

대회기간 로병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며 낮이나 밤이나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쟁로병들에게는 남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전쟁로병들은 자기들을 친혈육의 정을 안고 극진히 돌보아주는 려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하며 영원히 혁명의 꽃을 피워갈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진 욱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적도기네공화국 수상을 만났다

적도기네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7일 프란씨스꼬 빠스꾸알 오바마 아쑤에 적도기네공화국 수상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수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갓 독립된 적도기네에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적도기네민주당과 정부는 세월이 흘러도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주성을 견지하고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와 련대를 강화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적도기네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적도기네민주당 제1부총비서,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성 국무비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과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적도기네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와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꼬로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사이의 회담이 2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은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는 오랜 력사를 가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늘 김정은각하와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대통령각하의 깊은 관심속에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 적도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제1부총비서를 비롯한 적도기네민주당 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체류기간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적도기네민주당이 마련한 연회들에 초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개천시 전진동 전호삼, 김춘애부부는 세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집안에 아들이 태여날 때마다 이들부부의 생각은 한값으로 흘렀다고 한다. 그것은 자식들을 어엿이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것이였다.

전호삼동무는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수십년을 개천탄광에서 일해오면서 자식들의 가슴속에 조국보위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왼심을 썼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맏이가 최전연초소로 떠나갔고 그후 둘째, 셋째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조국보위초소에 청춘의 삶자리를 정하였다.

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고있는 자식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와 군기앞에서 찍은 름름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받을 때면 이들부부는 후방가족된 긍지를 한껏 느끼며 석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열의에 넘쳐 맡은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순 희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다.

로병들을 울린 이동봉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숙소에 아름다운 생활이 펼쳐지고있다.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우대하며 적극 내세우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이 전쟁로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밝아진 눈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 평양안경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벌써 전쟁로병들에게 가있었다.

지난 시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들이였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전쟁로병들을 위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스스로 찾았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안경제작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수천개의 안경을 마련한 후 그말음으로 전쟁로병들을 찾았다.

시력에 맞는 안경을 받아안고 눈이 밝아졌다고 기뻐하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을 보는 그들의 가슴은 어머니당에 기쁨드린 좋은 일을 또 하나 찾아한 긍지와 보람으로 벅차올랐다.

친혈육의 정으로 밝은 눈을 안겨준 평양안경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성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강원도 세포군에서 사는 방규영전쟁로병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의 풍값이 천냥이라면 눈이 팔백냥이라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흐려지던 눈이 오늘 다시 밝아졌습니다. 당의 뜨거운 사랑,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대회참가자들의 진정이였다.

영광의 사진, 행복의 사진

《이보라구, 정찰소대장! 어서 오라구.》

《좀 기다리게. 내 이제 군모를 바로 쓰고 간다니까.》

한 호실의 로병들이 서로 찾고 부르는 소리, 앞가슴의 훈장과 메달들을 왈랑절랑 흔들며 다급히 걸음을 내짚는 로병들의 모습, 벌써 사진기앞에 척 나서서 화선시절마냥 어깨겯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로병들로 4.25려관은 종일 흥성거렸다.

사진을 찍느라고 법석이는 로병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다양한 요구대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주느라 땀을 철철 흘리는 사진사들도 적지 않았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진사들이 모여왔는가고 하는 우리에게 한 일군이 그들은 평양시안의 여러 출판보도기관의 기자들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당에서는 대회기념이 될수 있게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숙소에서의 생활을 담은 사진도 마음껏 찍을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준것이였다.

달아오르는 마음으로 로병들을 바라보던 우리는 웃음속에 눈물짓는 한 로병의 모습에 눈길을 멈추었다. 황해북도인민병원 림상의학연구소 연구사이며 인민의사인 박사 부교수 공창왕전쟁로병이였다. 그는 말했다.

《대회장으로 올 때 우리가 바란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수도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에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이제 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옛 전우, 새로 사귄 전우들과 기쁨넘친 사진을 찍고나니 세상에 우리 최고령도자동지처럼 다심하고 뜨거우신분이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도 눈굽이 젖어들었다.

먼 후날에도 전쟁로병들과 그 자손들은 제5차 전국로병대회의 나날에 찍은 영광의 사진, 행복의 사진들을 보며 말하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비치는 따사로운 해빛이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따사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생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조선녀성들

어머니조국은 자랑한다

해방된 조국강산에 환희롭게 울려퍼지던 한편의 노래가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인민주권 받들고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의 날마다 건설된다는 그 한구절, 한구절이 가슴을 파고든다.

조선녀성들은 언제부터 복받은 삶의 주인공이 되였는가.

《…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또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여 더우며 우리 녀성에게 국가사회적보호를 주시며 아울며 여러가지 평등한 권리를 주심에 끝없는 감격의 눈물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녀성도 인간적대우를 받고 국가사회에 공헌할것을 생각할 때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새 조국건설에 초석으로 만들것을 맹세합니다.

…》

이것은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민주녀성총동맹원일동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감사편지의 한 대목이다.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그것은 오랜 세월 내려오던 우리 녀성들의 예속적인 지위에 종지부를 찍고 그들의 처지와 생활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거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여 발포하신것과 같은 남녀평등권법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녀성영웅들과 애국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봉건적질곡에서 신음하던 조선녀성들에게는 결혼의 자유도, 배움의 권리도 없었다. 해방전에는 조선녀성의 대부분이 문맹자였다. 중세기적몽매와 무지속에서, 식민지적착취와 억압속에서 우리 녀성들은 말그대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진정 1946년 7월 30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조선녀성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을것인가.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한다. 수레가 한쪽바퀴만 돌아가서는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성전에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친 항일의 녀투사들을 회고하시면서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력사와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온 자랑스러운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애국자로, 녀성혁명가들로 성장했던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후순간에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하여줄것을 부탁한 당의 참된 전사도, 적기의 맹폭격속에서 억척스럽게 농사를 짓고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준 주인공들도 우리 녀성들이였다. 전후 그 어려운 시기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한다고 절절히 아뢰인 해설방송원도, 공산주의적인간개조운동의 첫 봉화를 든 선동원도 다름아닌 녀성들이였다.

항일의 녀투사들이 들었던 혁명의 홰불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의 미더운 녀성군인들과 남편의 견장우에 빛나는 별을 가슴에 안고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이 되여 군인가족들이 새겨온 삶의 자욱은 얼마나 빛나는것이며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가정과 일터에 웃음과 노래를 더해준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강의하며 웅심깊은것인가.

내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이 땅우에 꽃펴나는 요리백과,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더해주는 과학적발명들과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친 금메달들…

그 모든것에는 우리 녀성들의 넋과 지혜, 땀과 열정이 력력히 스며있다.

우리 녀성들의 인생의 선택과 미래와 위훈, 그 바탕에는 한결같이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준 어머니당을 받들어 한생 변함없을 그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의 세계가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어느 한 협동농장의 청년분조원들을 만난 외국인은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녀성들을 가지고있다.

분필을 잡게 하고 철따라 멋쟁이옷을 입으며 맵시를 부릴 한창나이의 처녀들이 수도의 보금자리를 떠나 들바람을 맞받아 농장으로 자원진출하는 믿기 어려운 풍경은 현실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세상에 이런 녀성들도 있단 말인가!…

자기 수령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 불길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조선녀성들이야말로 이 세상 수십억 녀성들의 미를 다 합쳐도 견주지 못할 아름다움의 최고경지에 이른 녀성들이다.》

하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이것은 결코 세계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의 심장의 고백만이 아니다.

녀성들을 꽃이라고 노래만 부를것이 아니라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리 나라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며 녀성들이 한 일이라면 더 크게 내세워주시던 어버이장군님, 어머니날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진정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아니라면 어찌 백화란만한 화원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우리 인민이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 바로 여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가장 큰 긍지와 행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넓고넓은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웅으로, 애국자로, 혁명가로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우리 녀성들처럼 복받은 녀성들은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조향선

보답의 일념으로 불타는 맹세

로동자대의원이 터친 격정

런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사 허명금동무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근로자이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30여년을 묵묵히 무궤도전차운전사로 일해오고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허명금동무는 예비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인민을 위한 운행길을 멈추지 않았다.

조국과 인민은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뼈에 새기고 수도시민들을 위한 운행길에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그를 인민주권기관의 대표로 내세워주었다.

주체88(1999)년부터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해온 허명금동무는 3년전에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지금도 그는 자기가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던 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그에게 몸소 찬성의 한표를 바쳐주시고 앞으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던것이다.

온 우주를 한가슴에 받아안는것만 같던 격정의 그 순간 허명금동무는 이렇게 심장으로 아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오직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만을 가겠습니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그는 오늘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승벽심에 비낀 마음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는 녀성체육인들가운데는 림정심, 림은심동무도 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그들은 자매간이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체육을 사랑한 그들은 고마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세계가 아는 력기강자들로 자라났는데 언니인 림정심동무는 2중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이며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다.

어머니당에서는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여가는 그들자매를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었고 림정심동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림은심동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가득 받아안을 때마다 림정심, 림은심동무들은 이렇게 약속하군 하였다.

《우리 서로 누가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는가 경쟁하자. 그래서 세계의 하늘높이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를 계속 휘날리자.》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체육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자매간에 오고간 이 길지 않은 이야기에 다 비껴있다.

이런 숭고한 지향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훈련장마다에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녀성체육인들이 많기에 우리의 공화국기는 세계의 창공높이 펄펄 휘날리는것이다.

본사기자

우리는 녀성혁명가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과 녀맹원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장합니다.》

지금 온 나라 녀성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힘있게 떨칠 불같은 충정과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만리마대진군길에 아름답고 뚜렷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대한 어머니조국에 심장을 바쳐가는 녀성혁명가들의 애국의 열의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갈통깊이 느낄수 있었다.

기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녀맹돌격대활동에 대하여 알고싶다.

부위원장 손명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녀맹돌격대활동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녀성들의 충정의 대중운동이며 기특한 애국적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송림시녀맹위원회와 청진시송평구역, 남포시 천리마구역녀맹위원회안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파철모으기, 지대정리 등을 진행하여 금속공업을 추켜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탄광부문의 녀맹돌격대원들도 흥런탄수집, 비럭처리, 로반정리, 석탄운반을 비롯한 작업들을 진행하여 화력탄생산보장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함경남도녀맹위원회와 순천시녀맹위원회의 녀맹돌격대원들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살림집건설장과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였으며 강원도와 자강도의 녀맹원들은 여러 발전소건설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량강도의 녀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전투장에서 충정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녀맹돌격대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자: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원군사업과 좋은일하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녀성들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가.

부장 김혜영: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우리 녀성들은 올해에도 성의껏 준비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 달려나간 녀맹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북돋아주었다. 황해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녀맹원들은 긴장한 영농전투를 적극 도와주었으며 부림소관리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각지 녀맹조직들에서는 유휴자재수집을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기자: 지금 각지의 녀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면 한다.

부원 한선화: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지 녀맹조직들에서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녀맹원들이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많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며 강원도안의 녀맹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달려나가 골재운반, 풀길파기 및 보수, 자갈채취 등을 힘있게 벌려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부위원장 손명애: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녀성혁명가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백두전구에 피는 꽃

216사단 성, 중앙기관려단 1련대 6대대 인민봉사총국중대 녀성소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는 누구나 찬사를 보내는 녀성돌격대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인민봉사총국중대 녀성소대 돌격대원들이다.

어제는 세포전역에서 당의 원대한 구상실현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오늘은 백두전역에서 충정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녀성소대 리혜선소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의 성지를 꾸려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녀성이라고 뒤자리에 서겠습니까.》

이런 뜨거운 애국충정의 마음을 새겨안았기에 한금주, 조춘미, 임연희동무들은 함마명수로 이름떨치며 전자갈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충막휘틀조립을 할 때에는 김영미, 윤현희동무들이 짠진 일솜씨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오정실, 리장미동무들은 철근가공과정에 내버려진 자투리철근을 모두 수집하여 공사에 리용하는 소행을 발휘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돌격대원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마이크를 쥐고 힘있는 노래와 적동적인 화선선동으로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성철은, 김향선동무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지금 온 건설장의 남다른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남성들 못지 않게 일손을 재끼는 이곳 녀성돌격대원들은 생활에서는 다심한 중대의 맏누이로 불리우고있다. 하기에 사람들 누구나 이들을 가리켜 백두전구에 피여난 꽃이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백두전구에 피는 꽃, 정답고 사랑스러운 이 부름을 새겨안은 이곳 녀성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충정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다.

글 홍성준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세상에 보란듯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해마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이 오면 우리의 남성들이 의례히 찾군 하는 곳이 있다. 꽃상점, 꽃매대들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나이도, 성격도, 직업도 서로 다르지만 마음속에 하나같이 간직된것은 녀성들에 대한 사랑이고 존경심이다.

우리가 찾은 중성꽃금붕어상점도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상점에 들려 어떤 꽃을 선물해야 의의가 있겠는가를 의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제일 고운 꽃을 사랑하는 안해에게 안겨줄 생각으로 시간가는줄 모르고 꽃을 고른다는 중년의 손님이며 첫아들을 보고 맞는 7월 30일이라고 하며 사람들사이로 조심히 비집고 들어와 빨간 장미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청년, 일 잘하고 마음씨고운 직장녀성들에게 생각같아서는 이 꽃매대를 통채로 안겨주고싶다며 꽃을 고르는 청년들…

갖가지 모양과 색갈의 포장지들과 여러가지 형태의 장식띠로 손님들의 요구에 맞추어 꽃다발을 만들어주며 꽃과 관련한 상식들까지 즐겁게 이야기해주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때도 꽃매대가 흥성이지만 해마다 7월 30일이면 류달리 남자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더욱 이채를 띤다는것이였다.

오랜 세월 온갖 정치적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속에서 살아온 우리 녀성들, 그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의의깊은 날이여서 이날에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존엄떨치는 우리 녀성들을 위해 누구나 축하의 꽃다발을 정성껏 마련하는것이 이제는 례사로운 일이 되였다.

뜨거운 격정속에 잠겨있는 우리 귀전에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들,

《봉사원동무, 고운 꽃송이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로병대회에 참가한 어머니에게 드릴 꽃다발을 정히 엮어주십시오.》

《우리 도로관리원할머니에게도 꽃을 주고싶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의 단면이였다.

뜻깊은 날 화려한 꽃다발들을 가슴벅게 받아안으며 우리 녀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주체조선의 녀성혁명가로 삶을 빛내이는 한없는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그리고 더욱 굳게 가다듬으리라. 자기들이 받은 축하의 꽃송이들을 일터와 가정에서 혁신의 꽃, 화목의 꽃으로 더 활짝 피울 결심을.

이런 녀성들을 우리 인민은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운다. 나라의 꽃, 시대의 꽃으로!

글 본사기자 오은별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그들이 안고 사는 지향

사리원방직공장에서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 우리는 사리원방직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한 일군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 15일까지 30여명의 녀성종업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고싶어 작업장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우리가 제일먼저 만나본 녀성혁신자는 5직포직장 직포공 김영심동무였다.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올해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는 30년간 이곳에서 일해오고있는 40대의 녀성이였다.

날마다 맡겨진 과제를 넘쳐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던 처녀시절 그때처럼 어머니가 된 오늘에도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그는 성과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던 조직과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 저는 공훈방직공칭호까지 수여받게 되였습니다.》

참다운 삶을 빛내여주는 고마운 품속에서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기여가는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끝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처녀혁신자인 1직포직장 직포공 김일향동무도 만나보았다.

몇해전에 이 공장에 입직한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다.

그것은 2정방직장 직장장처럼 영웅이 되는것이였다.

나같은 연약한 녀자도 영웅이 될수 있는가고 묻는 그에게 나이 70을 가까이하고있는 영웅직장장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도 지난날 오늘의 동무들처럼 다기대운동을 벌리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밤깊도록 일을 하고 또 했지. 그때 난 평범한 정방공에 불과했던 내가 영웅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일향동무는 평범한 녀성들의 삶도 값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굳게 가다듬었다.

그는 자기가 맡은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이악하게 일하였다.

위훈의 나날속에 그는 조선로동당원으로,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결의를 이렇게 터놓았다.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자면 제가 한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안고 그만이 아닌 이 공장의 많은 녀성종업원들이 맡은 일에 헌신하고있었다.

우리는 년간계획완수자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3직포직장 직포공 류효정동무도 만나보았다.

그는 지난해에 이 공장에 들어온 신입직포공이였다.

어릴적에 부모를 잃고 중등학원에서 배우며 생활하다가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에게는 친부모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며 생일상도 잊지 않고 차려준 공장과 직장의 일군들이며 친근한 합숙관리원들, 맡은 일을 잘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오랜 직포공들…

따뜻한 정 넘쳐나는 인간사랑의 화원을 마련해준 어머니당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터놓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절로 터져나왔다.

녀성들도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사회주의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지난날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우리 녀성들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피여나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긍지높은 오늘에 대해 어찌 상상할수 있으랴.

우리는 보답의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이곳 녀성혁신자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로력적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건일

통신초소를 지켜 30여년

은산군체신소 작업반장 정애란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산군체신소 작업반장 정애란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늘까지 30여년을 교환수로 일하고있다.

희망도 포부도 남달리 컸던 그가 한생을 체신부문에서 일하고있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로병이였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 제대된 아버지는 당이 맡겨준 새 초소에서 일하게 되였다. 체신부문이였다. 비록 하는 일은 남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아도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꽉 차있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눈에 익혀온 정애란동무였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직업에 대하여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교환수가 된 딸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이렇게 되여 정애란동무는 체신부문의 많은 직업들중에서 교환수로 일하게 되였다.

많은 사람들의 호출을 제때에 받아 해당 대상들에 신속정확히 련결해주어야 하는 교환수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일하면서 무겁게 새기였고 한생 맡은 초소를 꿋꿋이 지켜가리라 마음다지였다.

명절날, 휴식날 따로 없는 직업이건만 남다른 애착을 안고 맡은 일을 숙련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피타게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동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세월은 흘러 그는 작업반장으로 자라났다.

힘은 들었어도 긍지와 보람이 더 컸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그는 작업반원들에게 늘 이야기하군 한다.

직업에 대한 애착을 안고 새겨가는 삶의 자욱보다 소중하고 값높은것은 없다고.

지난해 정애란동무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오늘도 교환기에 마주앉아 처녀시절 그때처럼 근무를 서는 정애란동무, 비록 보는 사람은 적어도 나라의 신경을 지켜간다는 긍지를 안고 한생을 한본새로 사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본사기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

《세계속에서도 조선은 자기 힘으로 발전하고있다. 그 어떤 제재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조선은 자립성이 강한 나라, 자기 식대로 살아나가는 나라이다.》, 《조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국내상품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있다. 조선사람들은 다른 나라 상품들보다 자기 나라의것을 더 좋아한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자강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 대해 각국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최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서방사람들은 들던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현실을 목격하고는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실업자가 없고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부모없는 아이들도 행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영국신문 《엑스프레스》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였다.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고〉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사회주의조선이 승승장구하는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광범히 전하고있다.

민주콩고신문 《라 프로스뻬리떼》는 최근 조선에서 자강력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의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추동력으로 자강력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고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그 진두에는 김정은각하께서 서계신다. 과학기술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식경제강국의 토대가 하나하나 구축되고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조선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자강력을 키워왔기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고있는것이다,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에서 살려는 조선인민의 지향은 오늘에 와서 더욱 강렬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도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체로 살아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은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아프리카도 조선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난시련을 헤치며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도 세계언론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 이르꾸쯔크주 동부씨비리출판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인민은 남이 도와주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고 자기 손으로 조국을 건설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굳건히 고수해온것은 조선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콩고통신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인민은 외부의 압력이 우심해지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신념의 강자들이다.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조선의 자강력은 조선인민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네팔신문 《라즈다니》도 조선인민이야말로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인민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낸 용감한 민족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굴의 인민이다고 찬양하였다.

자강력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풍파를 과감히 헤쳐가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보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자기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고있다. 이 세상에서 자력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조선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진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승리를 확신한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무진막강한 자강력의 힘있는 과시이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전진하는 조선의 힘과 기백은 정말 대단하다. 세계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 조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굳게 믿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력갱생의 위대한 전통이 있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불패의 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녀성문제해결의 빛나는 본보기

녀성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강직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이다. 녀성이 있음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에 웃음꽃이 피여나며 생활의 향기가 넘쳐난다. 이 행성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 녀성들처럼 당과 국가의 크나큰 은정과 혜택속에 자주적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적극 헌신해가는 녀성들은 없다.

언제인가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츠》는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조선녀성들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당과 정부의 시책에 떠받들려 많은 녀성들이 애국자로, 영웅으로, 시대의 선구자로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녀성들이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의 책임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적극 활약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녀성권리, 녀성해방 등 녀성문제를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내세우고 실현해보겠다고 한 나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그렇듯 훌륭하게 녀성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있는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벨라루씨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 쎄르게이 제바띠호가 집필한 도서 《민주조선의 녀성들》이 발행되여 이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이목을 끌었다.

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가 빛나게 해결된데 대해서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긍지높은 삶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저자는 도서를 집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녀성문제에 관한 조선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 도서를 집필하였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녀성문제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여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기때문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로작들도 발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은 녀성들이 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혁명과 건설에서 힘있는 력량으로 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서집필자뿐이 아니다. 광범한 국제사회가 지난날 온갖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버림받던 조선녀성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모습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날 온갖 차별과 천대, 멸시를 받으며 시들어가던 우리 녀성들이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남성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된 인생을 꽃피워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우리 녀성들의 자주적인 삶과 존엄이 빛나고있는것이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앞에 훌륭히 내세우는 모성영웅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일터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로력혁신자들…

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한가정의 꽃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의 긍지높은 삶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소개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녀성들은 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1948년 조선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조선당과 정부는 녀성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녀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따라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이 표현된다.

국제사회는 우리 나라 녀성들의 행복한 삶을 통해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미국의 어느 한 심장연구소의 성원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고 자기의 흥분된 소감을 감상록에 남겼다.

《아주 훌륭한 병원입니다. … 제가 남성이다보니 직접적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여기에 와서 훌륭한 치료를 받는 녀성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세계는 복받은 우리 나라 녀성들을 보면서 휘황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보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우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녀성들처럼 존엄높고 행복한 녀성들은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박진향

특등죄인들을 비호하는 공범자무리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야말로 집권기간 온갖 권력형부정부패범죄들을 저지른 특등범죄자들인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떼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족속이다. 그것은 이자들이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싸고돌면서 그것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눈에 피발을 세우고 극구 비호두둔해온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세상을 소란케 한 《국정》롱락사건으로 악독사와 같은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초불바다가 온 남조선땅을 뒤덮었을 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박근혜하야는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하여 재앙을 가져올수 있다.》느니, 《권력조급증에 걸린 중증환자들이 박근혜하야를 요구하는 정치선동을 하고있다.》느니 하면서 역도의 탄핵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라느니, 《신뢰할수 있다.》느니 하는 가소로운 망발로 민심의 저주와 증오의 표적이 된 역도를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보수떨거지들의 박근혜탄핵반대시위에 참가하여 란동을 부리는 등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는가 하면 역도년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처박혔을 때에는 《너무 가혹하다.》느니, 《법원의 판결을 용납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력사의 심판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박근혜가 특급범죄자로 재판에 기소된것은 역도가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온갖 죄악에 따른 응당한 대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박근혜가 집권후 저지른 범죄행위들이 줄줄이 폭로되자 그것을 무작정 부인하면서 역도와 한짝이 되어 실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보수패거리들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역도의 죄악을 어떻게 하나 감추려고 책동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역도가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있는데도 태평스럽게 자기 침대에 나자빠져있었다는것은 검찰수사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대참사에 대해 뒤늦게 보고받은 역도가 시급히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미용사를 불러 제 머리치장만 하고 주글주글한 상통의 주름을 펴면서 시간을 보낸것이다. 재난을 당한 어린 생명들을 구원할수 있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따위짓을 벌려놓은 역도의 행위야말로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되여 남조선 각계가 분노하고있을 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박근혜를 비호하면서 역도와 저들의 범죄흔적을 감추는데만 미쳐돌아갔다. 《자유한국당》것들의 망동은 역도와 공모한 저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단말마적인 발악이였다. 실제로 이자들은 《세월》호참사가 빚어졌을 당시 《〈대통령〉은 현장책임자만 잘 임명해주면 놀아도 된다.》고 너덜대면서 박근혜역도의 7시간행적을 밝힐데 대한 각계의 요구를 막아버렸는가 하면 대참사를 《교통사고》로 우겨대면서 《진상규명은 필요없다.》고 악청을 돋구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기를 쓰며 방해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방해한것도 바로 보수패당이였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역도보다 더한 부정부패왕초로 단죄규탄하는 리명박역도도 적극 싸고돌았다. 리명박의 구린내나는 사타구니밑에서 인민들을 억압하고 반역통치를 일삼으며 부정부패행위에 열을 올리온 이자들은 역도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대해 《잔인한 정치보복》이라고 걸고들면서 《어느때든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반발해나섰다.

그러면서 《리명박의 범죄혐의에 동의할수 없다.》느니, 《리명박과 박근혜가 《공동의 적에게 똑같이 침해당하고있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부패왕초를 한사코 정당화해나섰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남조선에서 보수적폐청산투쟁이 고조되면서 정보원특수활동비사건, 싸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사건, 민간인불법사찰사건, 보수단체불법지원사건 그리고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과 관련한 사기행위 등 리명박역도의 범죄사실들이 련이어 드러나자 극도로 당황망조해하면서 그것을 한사코 부정하고 여론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려고 지랄발광하였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죄악을 비호두둔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은 역적들과 한속통이며 공범자인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악취나는 주둥이를 계속 놀려대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범죄행위들을 감쌀수록 그것은 저들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심만 증대시키고 반역무리들을 력사의 무덤속에 영영 처박을 자체의 의지를 고조시킬뿐이다.

죄악으로 빚어진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비호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나서는 보수패당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족속들이다. 이런자들이 이제 와서 그 무슨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면서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한짝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남조선민심의 격분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혁신》의 간판밑에 변신놀음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잔고잔은 공범자들인 보수패거리들의 정체를 똑똑히 꿰뚫어보고있으며 민심을 기만우롱하는 반역무리에게 종국적멸망의 철추를 내리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엄수련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발전소 조업

에짚트에서 3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여 24일 조업하였다.

대통령의 참가밑에 조업식들이 진행되였다. 새 발전소들이 일떠섬으로써 방대한 발전능력이 조성되였으며 앞으로 국가전력망과 련결되여 주민들에게 전기를 보내주게 된다.

국산제공대공미싸일 대량생산에 착수

이란에서 23일 국산제공대공미싸일 《파꾸르》의 대량생산을 시작하였다. 레이다를 리용하는 이 최신식중거리미싸일은 각종 전투기들에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이 나라 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적대국들은 저들이 이란의 리익과 자원을 강탈할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란이 그 어떤 위협과 제재에도 전력을 다해 맞설것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평화실현노력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가 20년간의 전쟁상태를 끝장내기로 하였다. 1993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두 나라사이에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령토싸움이 벌어졌으며 1998년 전쟁이 시작되였다. 전쟁의 참화로 8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0년에 쌍방은 정전을 선언하였지만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은 깊어만졌다. 올해 7월에 들어와 두 나라는 전쟁종식을 선포하였으며 외교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 쌍방은 각기 상대측 수도들에 대사관들을 개설하게 되였다.

비법행위와의 투쟁 강화

인도네시아경찰이 24일 잠비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범을 사냥하여 가죽을 판매하던 2명의 밀렵자를 체포하였다.

케냐에서는 지난 2개월동안에 가짜상품을 팔아먹던 75명의 밀수업자가 억류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의 남부지역에서 7월에 들어와 70년래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쳐 먹는물원천이 대폭 줄어들었다. 혹심한 물부족으로 농업부문과 축산업부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한다.

수단에서

수단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큰물이 나 24일현재 10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또한 약 5 000채의 살림집과 건물들이 파괴되였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의 카트씨나주에서 지난 주에 들이닥친 큰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였다. 23일 주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파괴된 건물들의 잔해속에서 10구의 시체가 발견되여 사망자수가 62명에 달하였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녀성과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최근 태풍피해가 확대되고있다. 태풍과 폭우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25일현재 사망자수는 8명으로 늘어났으며 약 48만명이 소개되였다. 피해자수는 약 120만명에 달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나라 전국재해조정리사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원유문제는 왜 심각해지는가

얼마전 이란원유상이 석유수출국가기구(오페크) 성원국들이 원유생산량에 관한 자기들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구가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페크의 최신월간보고서에 의하면 6월중 일부 성원국들이 합의한 원유생산량을 초과하였다.

지난해 오페크는 원유가격의 하락과 시장에서의 판매, 소비의 균형을 맞출 목적밑에 올해말까지 원유생산량을 줄일데 대해 비오페크성원국들과 합의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시기에 들어와 그러한 사정은 현저하게 달라지고있다. 여러 원유생산국들에서 생산량증가추이가 나타나고있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격화되는 대립과 마찰은 국제사회에서 원유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부각시키고있다.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난 5월부터 이 나라에 대한 압박조치를 또다시 강화하였다. 이란의 에네르기와 원유화학, 금융 등 주요경제분야를 겨냥한 제재를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무성은 모든 나라들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란은 오페크에서 세번째로 큰 원유생산국으로 알려져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의 원유에 의존하고있다.

외신들은 만약 미국의 동맹국들과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수입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경우 이란의 하루원유수출량은 약 150만bbl 줄어들것이며 이로 인한 공급부족량은 세계원유총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세계원유시장에서 배제시킨 후에 초래되는 원유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할 타산밑에 여러 원유생산국들에 생산량을 늘일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미전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성원국들과 비오페크성원국들이 협력하여 부족되는 원유량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페크성원국들은 세계시장에서의 부족되는 원유량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생산국들이 원유생산량을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이란은 공급량을 늘이는것을 반대하고있다고 전하면서 원유생산국들사이에 또다시 의견불일치가 조성되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은 혈암유생산량을 급속히 늘이고있다. 올해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도이췰란드신문 《쥬드도이체 짜이퉁》은 이것은 미국의 《리기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최근년간 미국은 원유수출량을 대폭 늘이면서 저들을 잠재적인 공급자로 자처하고있다, 최근 유엔주재 미국대표 헤일리는 뉴델리에서 인디아수상 모디에게 이란에 대한 원유의존도를 낮출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인디아의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여러 나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교관은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미국이 금지할 경우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우리는 원유를 수송하는 그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 통제하고있는 호르무즈해협은 만지역 및 인디아양과 련결되여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서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로 수송하는 유일한 통로로 되고있다.

만약 이 수송통로가 막힌다면 서방경제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것이다. 이것은 나아가서 세계경제에도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있은 이란-이라크전쟁시기에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을 기뢰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이란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해 미군함이 피해를 입었고 미군도 그에 대응하여 이란함선을 보복공격한 일도 있었다.

중동나라들사이의 관계도 복잡해지고있다.

어느 한 통신은 아랍추장국련방의 한 에네르기분석가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제기한 생산량증가요구는 이 나라와 이란사이의 대립을 격화시키게 될것이며 시장에 긴장한 분위기를 더해줄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외교협회의 한 에네르기문제전문가는 이란에 대한 원유수출제한으로 조성된 빈구멍을 메꾸는 일은 오페크성원국들을 생산량증대로 인한 치렬한 분쟁속에 몰아넣을것이며 미국의 수입금지령은 지정학적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소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원유문제를 놓고 나라들사이의 각축전이 보다 치렬해질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군사비지출문제로 내부모순이 심화되는 나토

최근시기 미국과 나토성원국들사이에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의견상이가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은 나토수뇌자회의중에 갑자기 성원국들에게 군사비를 배로 늘구어 4%로 정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이것은 나토성원국들을 깜짝 놀래웠다. 그야말로 미국의 요구는 상상밖의 일이였다.

지금 나토의 많은 성원국들은 이미 정해진 액수의 군사비도 기구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 나토는 지난 2014년에 각국의 군사비를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2%로 정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이 목표에 도달한 나라는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미국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은 나토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을 자주 비난해왔다.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하였다. 그로 하여 나토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성원국들사이에 팽팽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에서 군사비를 배로 늘일것을 요구하여 성원국들을 당혹하게 만든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나토의 내부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외신들은 이번 나토수뇌자회의가 성원국들사이의 《련대감》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서로 적의감을 품게 하고 균렬만을 초래한 실패한 회의라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실지 나토성원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유럽리사회 의장은 《돈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련대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미국에 충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1년 미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동시다발테로사건후 미국과의 련대를 위해 유럽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병사들가운데서 800여명이 희생된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고 역습하였다.

현재 29개의 나토성원국들중 22개 나라가 유럽동맹 성원국들이다. 그들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여 지난 시기 《반테로전》에 적극 가담해왔다. 자기 나라들에 대한 미군사기지설치 등 많은 요구들을 다 들어주었다.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이 그에 대해 너무도 몰라준다고 하면서 반발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 수상 메르켈은 미국대통령과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였다.

국내총생산액의 1%가 조금 넘는 자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있다고 다불러대는 미국의 요구에 메르켈은 자기 나라가 나토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해 강조하는것으로 맞대응하였다. 그는 자국군대의 많은 부분을 나토의 처분에 맡기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연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인원을 주둔시키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리익도 보호하고있다.》고 완강하게 주장해나섰다.

유럽동맹내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독자적인 공동방위무력을 창설할데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있다. 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방위문제에서 전적으로 나토에 의존하여왔다. 그러나 그 손탁에서 벗어나보려는 유럽동맹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여러 유럽나라들이 《전략적인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동맹내에서 자체의 방위협조를 추동하고 행동능력을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서로의 전략적리익과 관련된 군사비지출문제를 놓고 나토내부의 갈등과 마찰은 더욱 심화될것이다.

본사기자

중시되는 건늠길표식선

건늠길표식선은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해주는 《생명선》인 동시에 거리의 미를 돋구어주는 《풍경선》으로도 되고있다. 하지만 건늠길에 표식선이 있다고 하여 그 길이 절대적으로 안전한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보행자들이 손전화기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책을 보면서 도로를 건너가고있다. 이것이 엄중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일부 나라 도시들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신호등과 같은 색갈의 빛을 내보내는 여러개의 띠등을 설치한 건늠길표식선을 착상해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이나 생각을 하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떤 도로들에는 건늠길표식선을 천연색페치로 하거나 색비닐테프를 붙이는 방법, 갖가지 색갈을 배렬하여 만든 3D립체건늠길표식선을 놓이는 방법 등 운전사와 보행자들에게 낮에는 물론 밤에도 건늠길표식선에 대한 시각적효과를 크게 해주는 여러가지 착상들이 도입되였다.

건늠길표식선은 고대로마의 징검돌에서 유래되였다. 고대로마제국에는 길이가 매우 긴 도로가 있었는데 이곳으로는 4륜마차들이 분주히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4륜마차와 사람들이 한데 섞이면서 빈번히 도로가 막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군 하였다. 그후 도로에는 사람들이 건너갈수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표식물의 역할을 하는 징검돌들이 생겨났다. 징검돌들은 마차의 두 바퀴사이에 놓이도록 설치되였으므로 마차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후 기차와 자동차 등이 출현함에 따라 사람들속에서는 도로를 건너가도 된다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1950년대초 영국남부의 어느 한 도로에 세계최초의 건늠길표식선이 생겨나게 되였다.

자동차도로의 건늠길표식선에 들어선 사람들은 차보다 먼저 통과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전사들은 건늠길표식선에 접근할 때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사람들이 건너갈 때에는 차를 멈추어야 한다.

건늠길표식선은 보행자들과 자동차들이 질서있게 지나갈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ㄱ-181118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